

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01.56	↑ 코스닥	739.23
	(+23.57)		(+3.13)
↓ 금리 (국고채 9년)	4.071	↑ 환율	1357.30
	(-0.014)		(+6.80)



고금리에 빛 부터 갚는다... 기업들 10억 초과 예금 ‘뚝’

6월말 저축성 예금잔액 1633조 10억 초과 고액예금은 3% 감소 정기예금 4.6% 줄어 감소 전인

고금리 지속되자 부채부터 축소 만기 시기 기업중심 상환 늘 듯

기업들이 정기예금에서 거액을 인출해 회사채와 은행대출을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빛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정기예금·정기적금·기업자유예금·저축예금을 포함한 저축성 예금잔액은 6월말 기준 1632조972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622조6940억원)과 비교해 10조2780억원(0.6%) 늘어난 수준이다.

◆ 10억원 초과예금, 10년만에 감소
반면 저축성예금 잔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예금은 같은기간 796조3480억원에서 772조4270억원으로 3% 줄었다.

10억원 초과예금은 2018년 6월말 532조원에서 2019년 593조원, 2020년 650조원, 2021년 716조원, 2022년 78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10억원 초과예금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2013년 6월말 379조5800억원에서 같은해

12월말 362조8260으로 줄어든 이후 약 10년만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기예금이 10억원 초과예금 감소를 이끌었다. 정기예금 중 10억원 초과예금 잔액은 538조8160억원으로 지난해 말(564조5460억원)과 비교해 25조7300억원(4.6%) 줄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들이 예금만기가 되면 기업대출을 상환하거나 회사채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기회복이 더뎠고, 고금리상황이 계속되자 부채를 줄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회사채, 은행대출 금리 인상... 기업 빛부담 ↑

실제로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무보증 3년·AA-) 채권금리는 4.908%로 한달 전(4.658%) 보다 0.25%포인트(p) 올랐다. 3개월 전인 7월 말(4.467%)과 비교하면 0.44%p 높다.

기업들의 회사채 상환액도 늘었다. 지난달 회사채 발행액은 4조6748억원, 상환액은 7조5298억원으로 순발행액은 -2조85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기업대출은 9월말 기준 5.27%로 한달전과 비교해 0.06%p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5.34%로 같은기간 0.1%p 상승했다.



국제 금값 고공행진

전쟁 여파로 금값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월간 기준 국제 금값은 지난달 8.19% 올라 3월(8.8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싱가포르거래소에서 현물 기준 금값은 한때 온스당 2006.83달러에 거래됐다. /뉴시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당분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대출을 상환하는 기업도 많지만, 대출을 받는 기업도 늘고 있다”며 “고금리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위기에 연말 연초 예금만기 도래시기에 따라 여력이 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상환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SM 시세조종 이어 분식회계 의혹까지

카카오모빌리티 상장 ‘제동’

모빌리티 3000억대 회계조작 의혹 회계 부정 사실 확인 땀 상장 희박

최근 금융당국이 카카오를 정조준하며 그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재계 순위 10위인 카카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당국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부터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회계 부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분간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 가능성은 희박해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을 문제 삼고 재무제표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제공하는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분식회계 여부 등을 의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3000억 원대 ‘매출 부풀리기’를 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두 계약은 별도의 계약일 뿐만 아니라, 매출을 부풀리면 영업이익이 낮아져 오히려 상장에 불리하다”며 “외형 부풀리기가 아니다”라고 전면 반박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수회사(법인 또는 개인기사)에 광고 노출 등의 대가로 운임의 15~17% 정도를 돌려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운임의 3~4%만을,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산해왔다. 금감원의 주장에 따르면 매출액의 분식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로열티는 가맹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운수회사 간 업무 제휴 계약은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 등의 대가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수회사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업공개(IPO) 계획도 틀어진다. 뿐만 아니라 관련 경영진 등은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장 목적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처럼 금감원과 카카오모빌리티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결론이 나기까지는 장시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도 금감원의 감리 결과에 따라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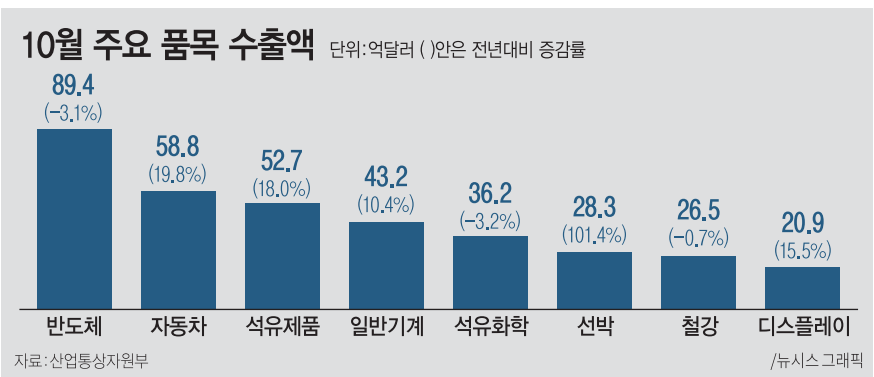
반도체 살아나자 수출 13개월 만에 ‘플러스’

10월 수출 550억 9000만 달러 車·선박 등 늘고 반도체도 개선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 올해 들어 최저인 -3.1%를 기록하는 등 개선세가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올해 들어 최대 실적인 550억 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했다. 반도체와 대 중국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가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19.8% 상승해 16개월 연속 증가했다. 가전(+5.8%)은 5개월 연속, 선박(+101.4%)·디스플레이(+15.5%)는 3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4대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석유제품(+18.0%)도 제품가격 상승과 휘발유·경유 등의 견조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8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인 -3.1%를 기록해 개선흐름을 이어갔다.

석유화학도 올해 최저 감소율(-3.2%)을 보이며, 지난달에 이어 한자릿수 감소율이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아세안·미국·일본·중동·중남미·인도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 미국 수출은 101억달러로 역대 10월 중 가장 높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 여 ‘메가서울’에 ‘천공 음모론’ 꺼내... ‘행정 대개혁’ 역제안도
▲ 조경태, 대통령에 ‘그만두라’한 김용민에 “국회의원 자격 없어” /사진 뉴시스

▲ 박수영 “경기 분도, 정치인·공무원만 좋아져... ‘메가 서울’이 월등”
▲ “충남에서 미래를 투자하라”... 김태흠 지사, 유럽 경제시장에 프러포즈



▲ 이재명, ‘친명 총선거획단 논란’에 묵묵부답 /사진 뉴시스
▲尹, 민생 타운홀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국민들과 직접 소통’